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August 14,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6:4-18 고난을 넘어선 감사와 찬양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309장 - 목마른 내 영혼 (결단의 기도) <small>(통일찬송가 409장)</small>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김훈태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small>(통일찬송가 348장)</small>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3절) <small>(통일찬송가 456장)</small>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4:13-5:11

성도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8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성도의 사명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개학 자녀들이 새학기를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PCoP 사역 협력 Rummage Sale (9/17)을 위해 9/11까지 필요한 물품을 모아 주십시오. 교회 건물 미화(페이트 작업 및 섬김의 교회 배너 설치)에 제안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전도와 섬김 교회로 인도할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깁시다.
- 찬양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을 격려하고 성령의 인도를 위해 더 기도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교우 동정 - 한국 방문: 구 민, 은강 집사 가정 / 박강현 Caleb

▶ 8월의 사역 -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4-20)

선교주간(21-27) 선교주일(28)

♥ 8월 생일축하 ♥ 최성주(16) 김신실(18)

기도제목

1. 자녀의 건강문제로 근심하는 가정을 위해
2. 새로운 직장을 찾는 가정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3.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와 부모를 위해
4. Youth Ministry와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5. 새로운 교우의 적응과 적극적 전도운동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14	8/21	8/28	9/4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8/14	8/21	8/28	9/4
	최선윤집사/김훈태집사		구 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 출애굽기 15:22-27

3일 동안의 광야생활로 이스라엘은 심한 갈증을 느꼈다. 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점검하셨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지, 현실의 거센 바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해부하셨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 가졌던 이스라엘의 기쁨과 찬양은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고 불평했듯이 우리 역시 최종 목적지 천국을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세상의 즐거움, 인생의 자랑과 욕심은 잠시 거치는 과정임을 잊고서,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고난을 넘어선 감사와 찬양 / 출애굽기 16:4-18

한 달간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양보다는 원망을 쏟아 놓았던 이유는?

첫째, 과거 지향적이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잊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셨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도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넘어선 감사와 찬양 / 출애굽기 16:4-18

이스라엘은 실패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었다.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계속되는 것인가?

첫째, 과거 지향적이었다. 이스라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옛 삶을 동경했다. 노예생활에서 자유의 삶으로 변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살던 때를 돌아보며 불평했다. 자유를 잃고 바로와 이집트를 위해 일하던 과거, 심지어 갓 태어난 아들을 강에 수장하던 과거, 더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던 때로 돌아가려 했다. 성도 역시 천국을 향한 좁은 길을 걸으며 불평한다. 쉬운 길을 가며 세상의 즐거움과 편함을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회회하곤 한다. 예수님은 죽음과 심판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주께서 다시 오시어 누릴 천국의 축복된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자.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다. 단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에 정착할 준비를 해야 했다. 광야의 연단을 불평하며 훈련을 거부하며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교회와 성도 역시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피할 수 없다. 사업, 자녀, 관계, 질병 등으로 겪는 어려움은 각자가 지나야 할 광야이며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과정임을 잊지 말자.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이스라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일용할 약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불편과 고통을 경험할 때, 원망하기 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평과 불신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연단과 훈련은 천국을 바라 보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원망이 앞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자. 각자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원망보다는 감사를, 불평보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눈물이 나아 회개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울었어요.

많은 사람이 후회와 회개를 혼동합니다.
후회는 꼭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동안의 죄악된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뒤바뀌는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과 후회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후회와 회개'라고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 약 1:23-25, 쉬운성경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냥 거울 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돌이키고 실천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평생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회개한 죄는 죄 목록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빌 것입니다.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네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느냐?

네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네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느냐?
너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네 삶을 돌이켰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히 8:12, 쉬운성경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시 강력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C. S. 루이스는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요, 회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개를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와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길영,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 GODpeople



“영이 그리워지 어니우니 고우니 회개부후 고우니 어니우니 내가 내게 가서 네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찬양하라.”

요한계시록 2:5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